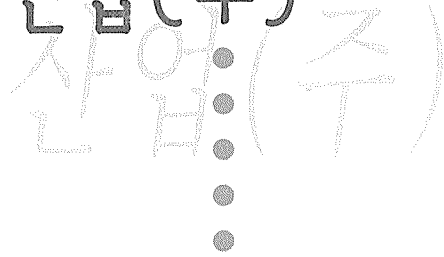


# 골든코넥터

## 골든코넥터산업(주)



### 코넥터 전문 생산업체

1984년 코넥터 전문·제조업체로 설립된 골든코넥터산업(주)는 정보통신 산업분야인 컴퓨터 및 이동통신기에 적용되는 코넥터의 국산화 개발과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들어 고도의 성장을 이룬 이동통신 기기에 적용되는 코넥터의 개발을 필두로 하여 MP3 Player용 MMC Connector의 개발에 이르기 까지 선진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국산신기술 인증마크인 KT를 두번이나 획득하고 NT, EM등 수많은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95년 이후 본회가 주체한 우수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전례만으로도 이 회사의 개발에 대한 집념을 헤아릴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대표이사 윤여순 사장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 대표 : 윤여순
- 주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22-3
- TEL : 02)371-2301
- FAX : 02)371-2306
- 주요생산품목 : 코넥터,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주변기기

제품 개발 및 적기 공급만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라고 윤 여순사장은 말한다.

또한 그는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출, 프레스, 도금 등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필요로하는 코넥터 제조업체들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니까요.”라며 개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제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골든코넥터산

업은 회사의 조직체계를 「독립 재산 소사장제」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그결과 개발기간의 단축, 가격의 국제 경쟁력 확보, 품질의 안전성 유지, 적기공급, 커스텀머제이션 방식의 생산 시스템 구축등 수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 ‘개척’ ‘창출’ ‘책임’ ‘자부’

골든코넥터산업의 개발 의지는 남다르다. “신

#### 독립재산 소사장제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익의 산출이만큼

이익을 위해 회사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자부하는 윤여순 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이익들이 단순한 개편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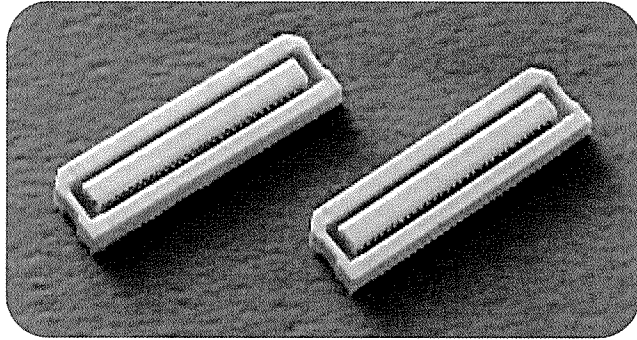
이는「독립채산소사장제」라는 제도 자체가 그 어느 체제 보다도 책임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독립채산소사장제」의 소사장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회의에 소집된다. 그들은 각각의 분야에 있어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골든콘넥터산업에 예측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하는 그들의 태도는 무척이나 적극적이며 불량에 대한 책임감 역시 대단하다.

**국내최초 MP3 Player용 MMC 콘넥터 개발**

이러한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책임의식으로 골든콘넥터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신기술의 제품을 개발해 냈다. 2.54mm Pitch Connector를 개발했으며 2.0mm Pitch, 1.27mm Pitch, 1.0mm Pitch, 0.65mm Pitch, 0.5mm Pitch Stacking Connector 그리고 MP3 Player용 MMC Connector까지

골든콘넥터산업의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개발



된 제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만큼 고도의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내수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

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의 98년 총 매출액이 135억원이며, 이중 수출액이 U\$8,500,000을 달성한 기록이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92년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인도에 약 100만볼 콘넥터 플랜트를 수출하였는가 하면, 인도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사로 S. J. Max Golden-Ko Lt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의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구 모델 제품에 대해서 인도 현지의 값싼 노동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신제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구 모델의 제품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것이 없다는 윤여순사장은 향후 전문화된 초점화 전략(콘넥터 분야의 협퍼치 제품)과 가격이 아닌 가치로 판매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여 2001년 코스닥에 등록하여 종업원 누구나 긍지와 보람을 갖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